

제 6회 흙별하는 뇌과학

제 5강

2014. 10. 2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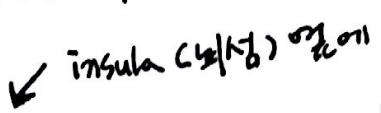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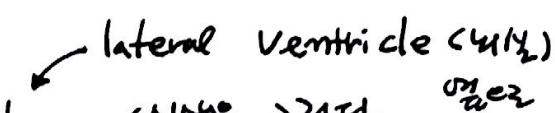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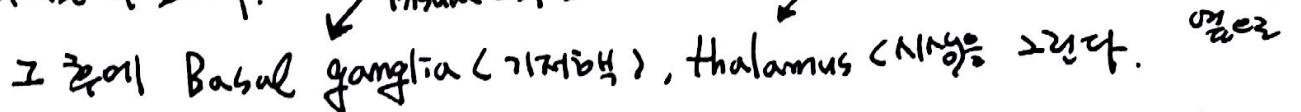
지도만 도통처럼 내용이 있는 정리를 10개 이상을 외우면 어떻게 될까.

단행본 책을 10년을 넘아도 자기것이 되지 않는다. 애매모호한 정리를 가질 뿐이다. 초기성을 유발할 때는 좋지만 궁정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좋지 않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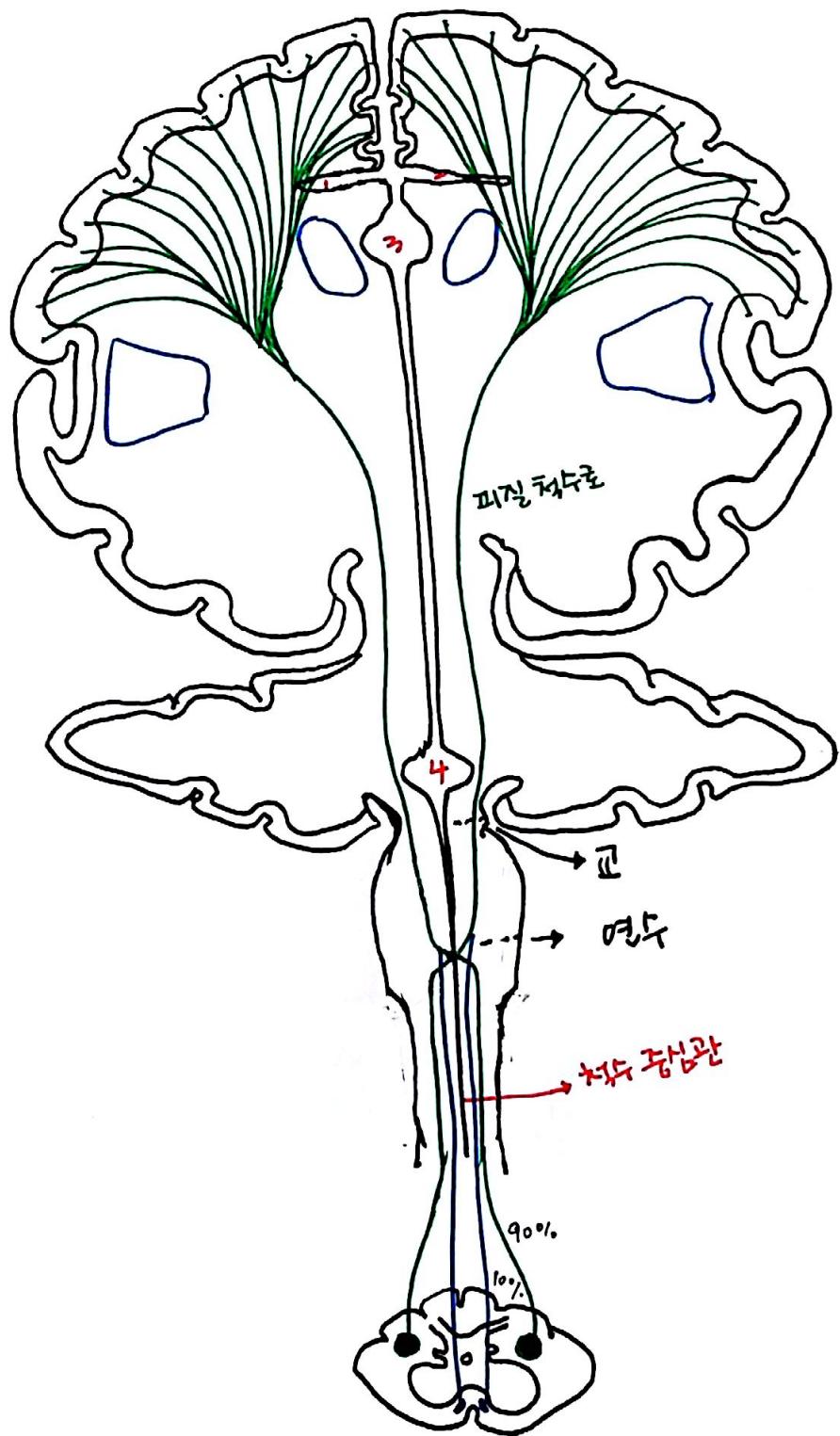
뇌과학 그림을 그릴 때 잘 안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?

방법은 반복외에 없다. 그리고 실제로 그림에 여러 정리가 달라 볼는다.

실체가 있는 지식은 흙 - 날아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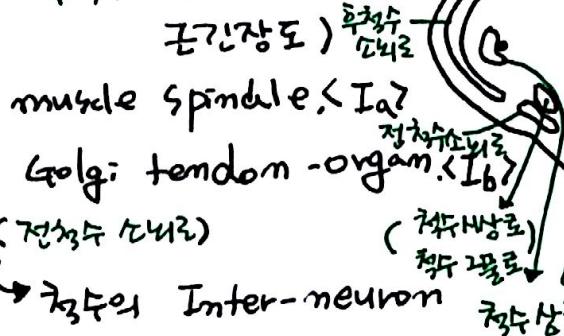
다음 그림에 될 그림은 간단치 않다. 그림의 형태와 그림의 위치를 고려해 한다. 좌우 대칭을 맞추어 그려야 뇌의 모양을 그려낼 수 있다. 뇌실은 외측 내실, 제 3뇌실, 제 4뇌실에서 ~~출입~~으로 빠지는 구조이다.   그 뒤에 Basal ganglia (기저핵), thalamus (신경핵)을 그린다. 

thalamus와 Basal ganglia 사이에 tract를 그린다. tract가 뒤에 있는 모양이 internal capsule이다. 그 뒤에 medulla oblongata가 뒤에 교차하여 척수로 내려간다. 교차하는 것은 바로 뒤에 가는 것이다. 교차는 lateral Cortico-spinal tract, 교차하지 않는 것은 anterior Cortico-spinal tract (90%) (10%).



동수감각에 속지 말자.
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중에
온도감각이 중요하다. 온도가
생명체를 살고 죽고를 결정하는
때문이다.

고유수용 감각 (근육감이 변화
(후각수 소뇌로)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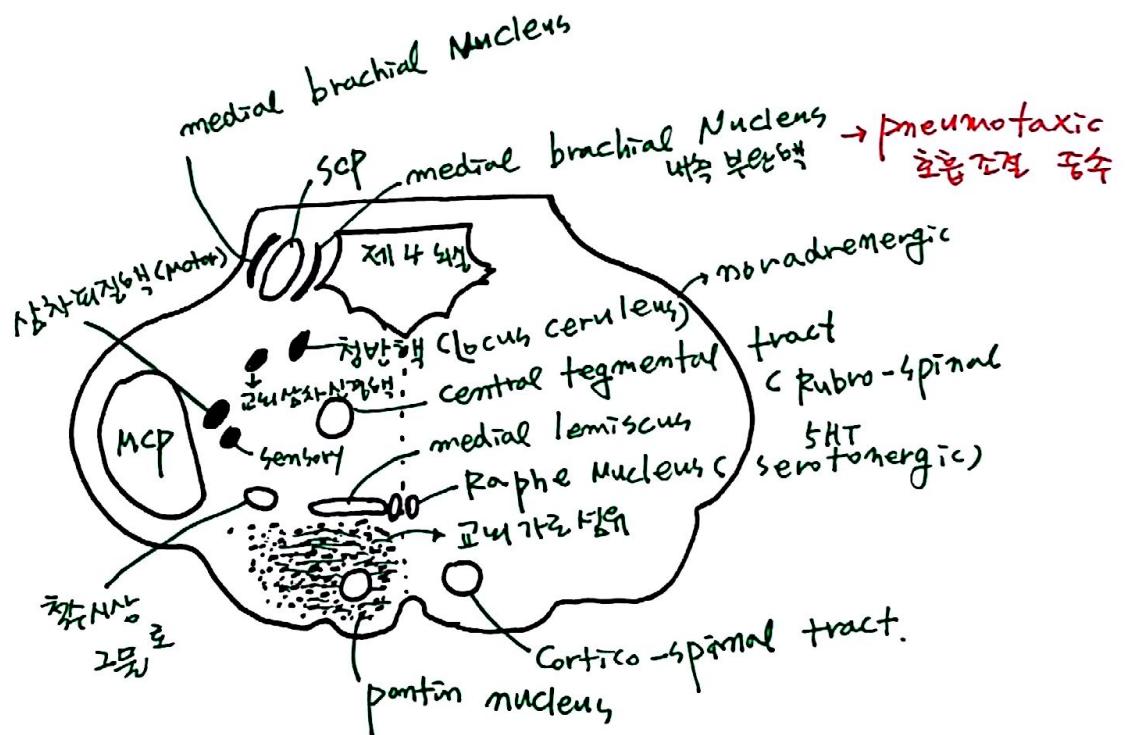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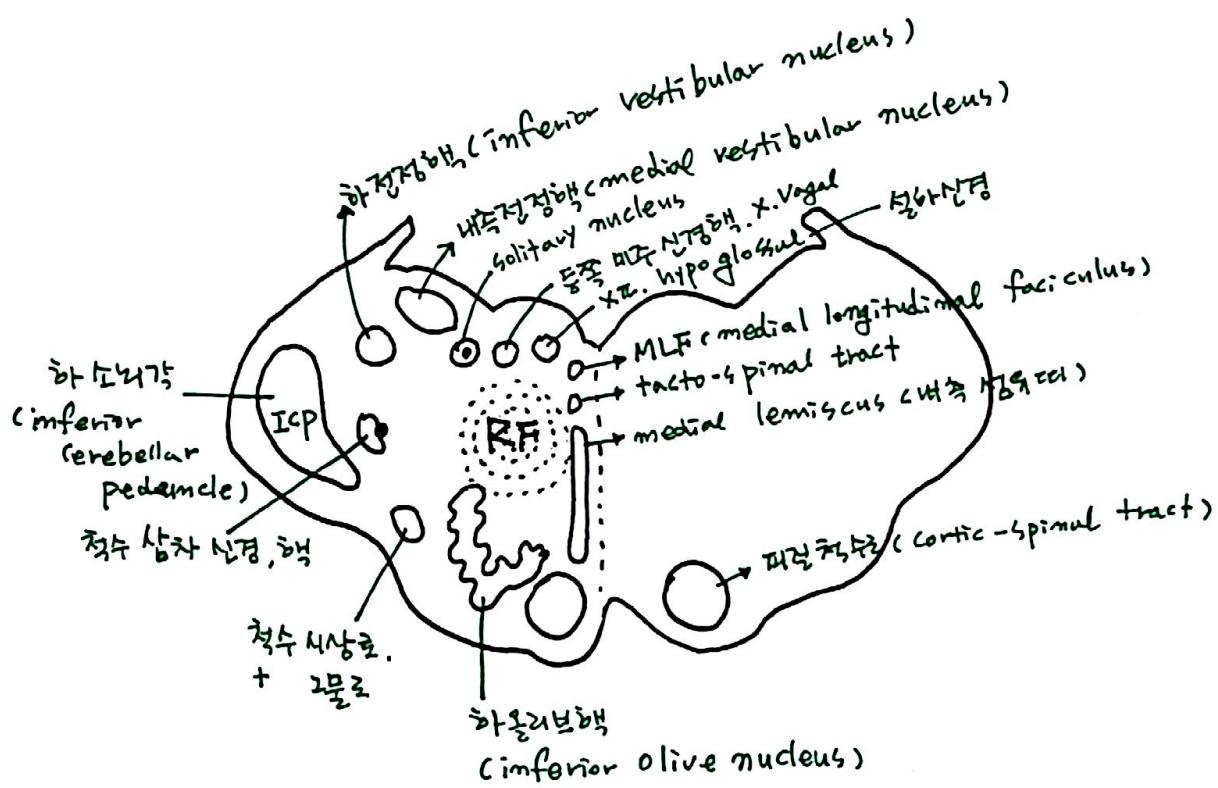
연수 < medulla part 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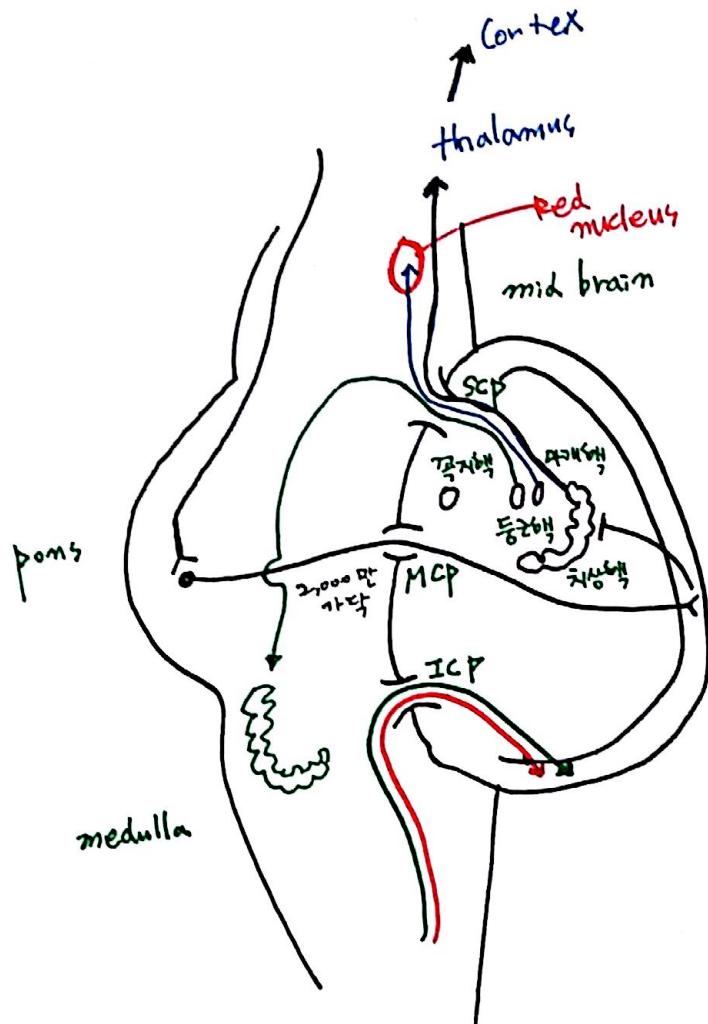
Activation의 정보

- inferior olive nucleus는 세포기둥(운동)을 일할 때 firing하고 이동해진 이동에는 작용하지 않는다.
- 전 척수 노드로 양쪽으로 척수NT로 (Spino-thalamic tract)
; 통각
- + 척수 그물로 (Spino-pontile tract)
; 통증을 포함하는 여러 감각
- 그 위로
의문핵이 있다. 내장감각과 관계가 있다.

* medula oblongata (연수 구간) 하여
마세지 다발, 얇은 다발이 medial
leminiscus 대측선
바깥에 얕은 다발로
증수신경계로 올라간다.

- 후각수 노드로 + 전 척수 노드로의 정보는 하신각으로 흘러 들어간다.
- 연수에서 올라온 척수 NT와 척수 그물을
살아난다.
시상과 그물핵상체가 그 위에
위치하기 때문이다.
- 5번, 7번, 9번, 11번 아래 부분에 하올리브
이 있다.
• 노드의 관계가 있는 전정핵이
등장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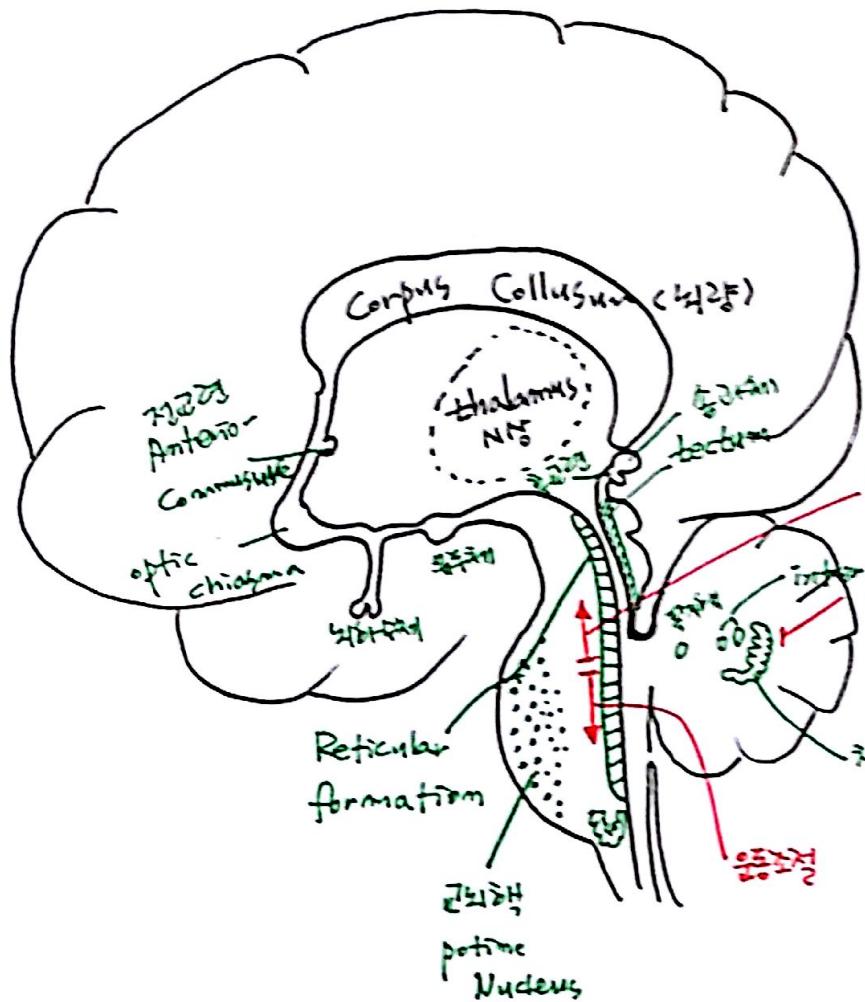


SCP (superior cerebellar peduncle)
 MCP (medial cerebellar peduncle)
 ICP (Inferior cerebellar peduncl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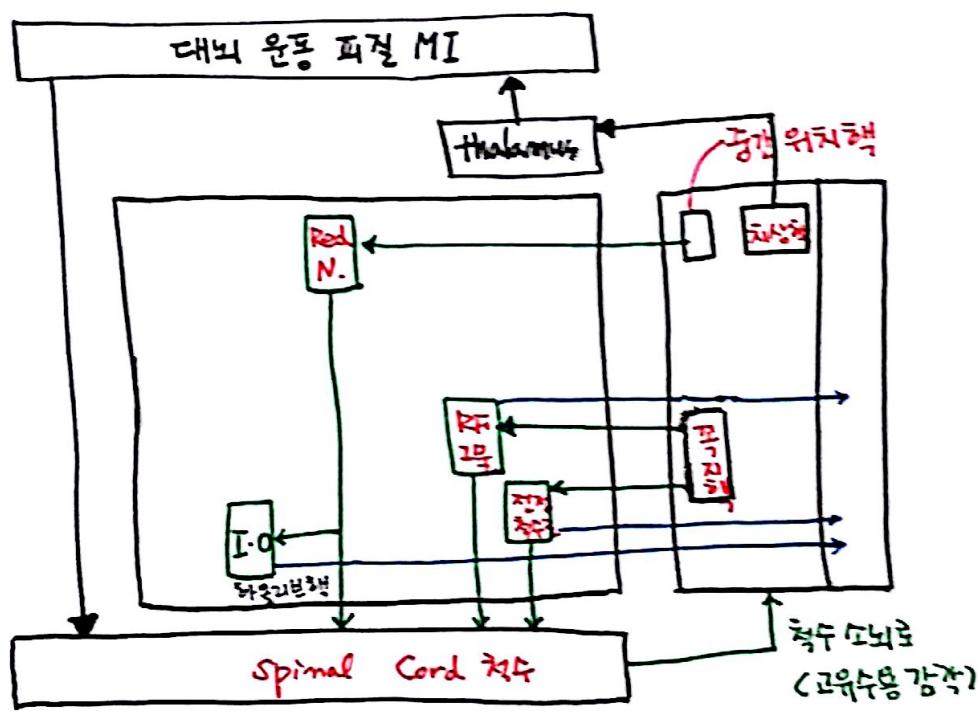
cortex 2,000만 가지
 2,000만 가지
 2,000만 가지

Cortex에서 온 정보가 pons에서 Cerebellum Cortex를 연결된다.
 MCP로 연결된 대뇌피질은 2,000만 대뇌피질이 있다. 그리고 그 정보는 다시 척수에서
 thalamus → Cortex를 통과한다. 이 때 실시간 Real 정보가
 필요하다. 이런 가富民에 20mm의 큰 크기의 축삭이 필요하기
 되어온다.

운동을 잘 한다는 것은 이 뉴런이 발달한다는 의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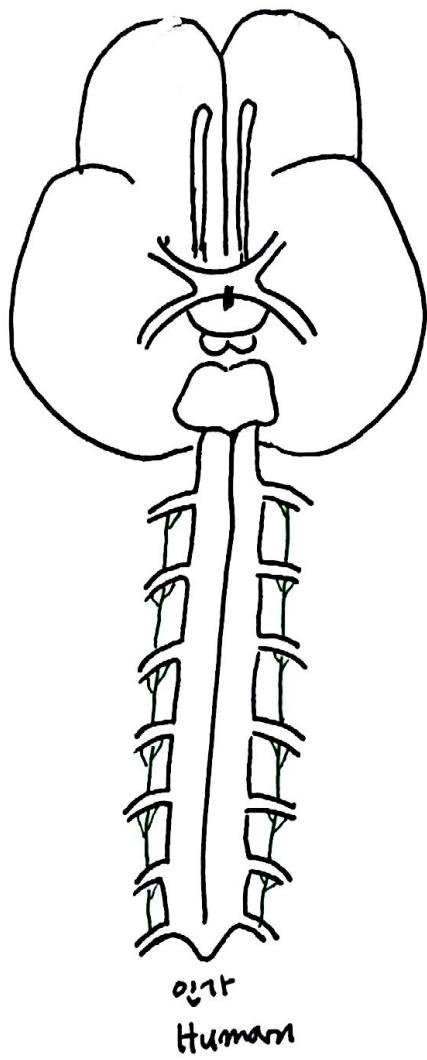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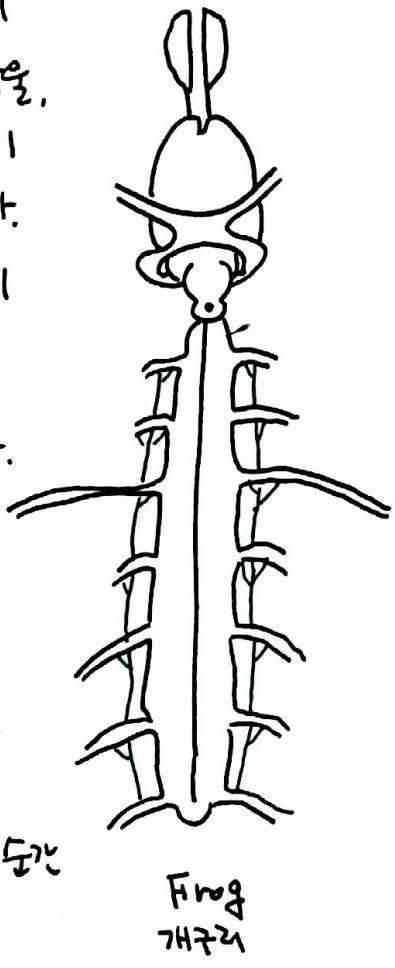


인간에 와서 두 발을
걸기 시작하면서
Spinal Cord를 연결하는
방향이 두 가지가 되었구.



인간에 와서 혼자만
N스텝을 쓸다.
표유족에 와서
아드레날린 시스템을
껐다.
물고기에서부터
인간에 이르는 변화를
이해해야 한다.
인간에서 꽃이 핀
tract는 손의 사용을
가능케 한
Corticospinal
Tract이다.

인간에 와서 대뇌피질이
발달되었다. 척수, 후각 망울,
시각 등의 정보를 처리하기
위해서 대뇌가 커졌다.
구조를 보면 크게 변하지
않았다.
우리는 멀리가지 못된다.
개구리와 인간은
큰 차이가 없다.
나가 어디서 찾는지
생각할 만한 그림이다.
조용한 공간에 앉아
이 그림을 그리면 어느 순간
꼼짝할 수 없는
진실을 만나게 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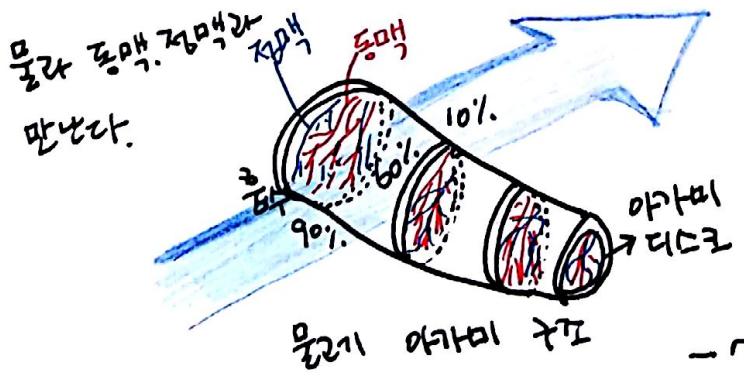
이제 상어를 고려보면 더 실제를

만나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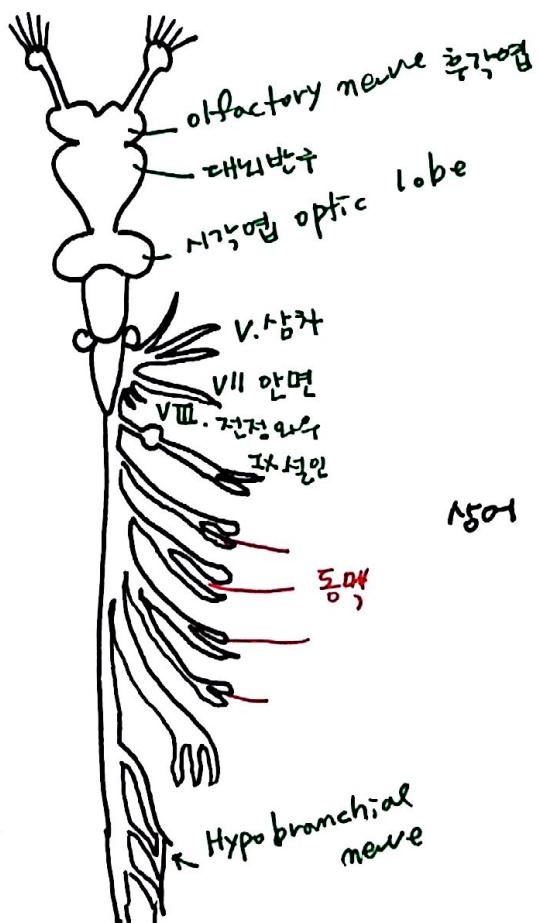
아가미로 호흡을 한다. 그런데 물 밖에 없다.
물을 들여 마시는 것과 아가미 물 속에 삶소를
흡수한다.

산소를 물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
디스크 대과 기관 구조를 유형화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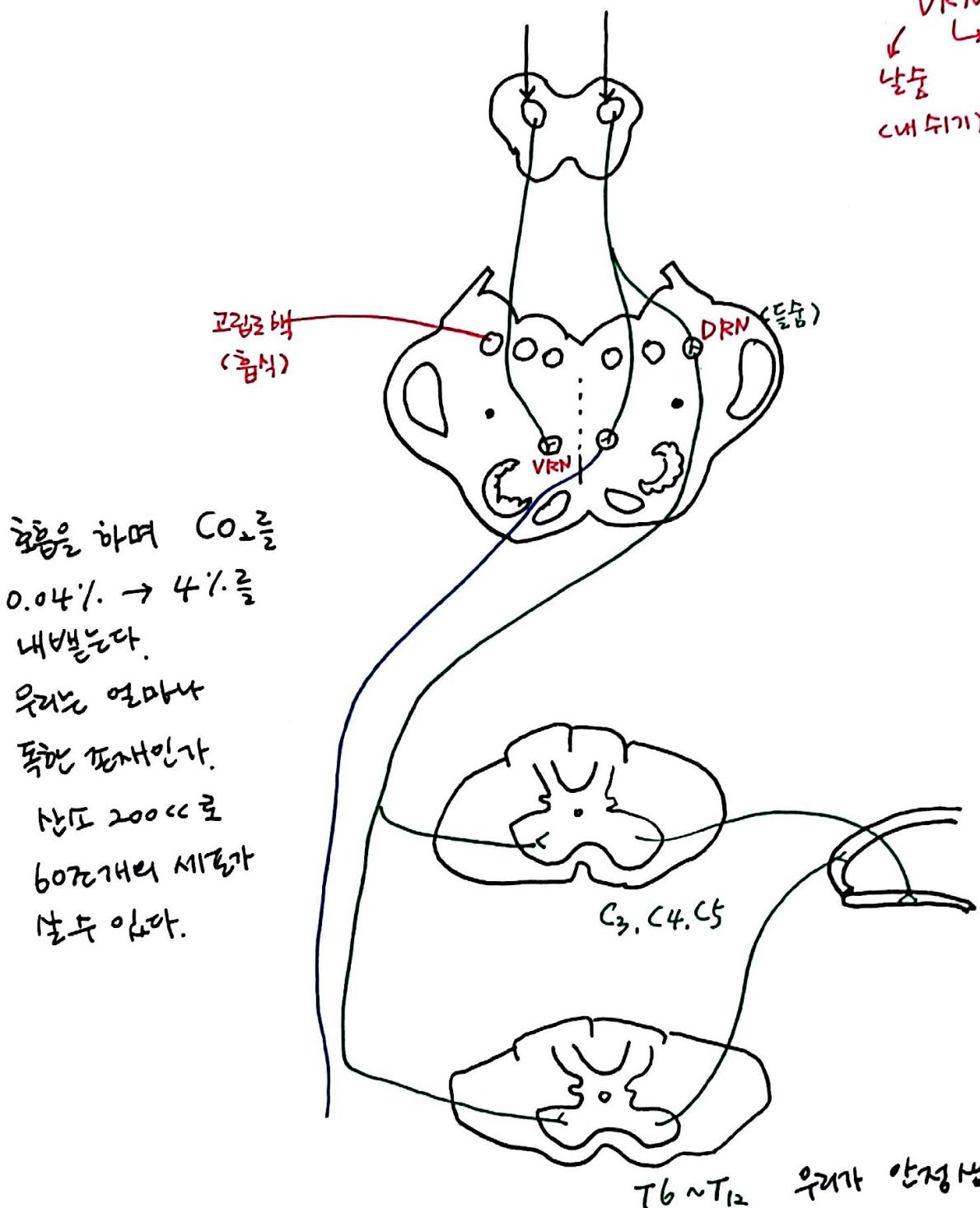
바다 물



- 7 -



↗ 등숨(들이 쉬기)
 DRN : Dorsal Respiratory Nucleus
 VRN ↘ : Ventral Respiratory Nucleus
 날숨 (내쉬기) Respiratory Nucleus



호흡을 하며 CO_2
0.04% \rightarrow 4% 를

내뿜는다.

우리는 얼마나

깊은 숨을 쉬는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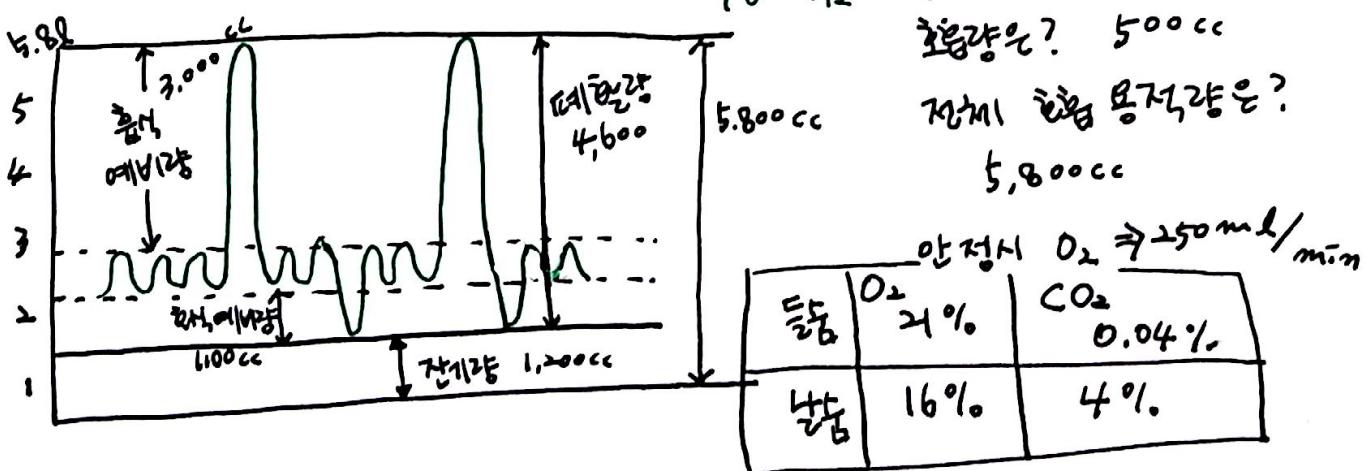
상기도 200cc로

60회가량의 세월을

살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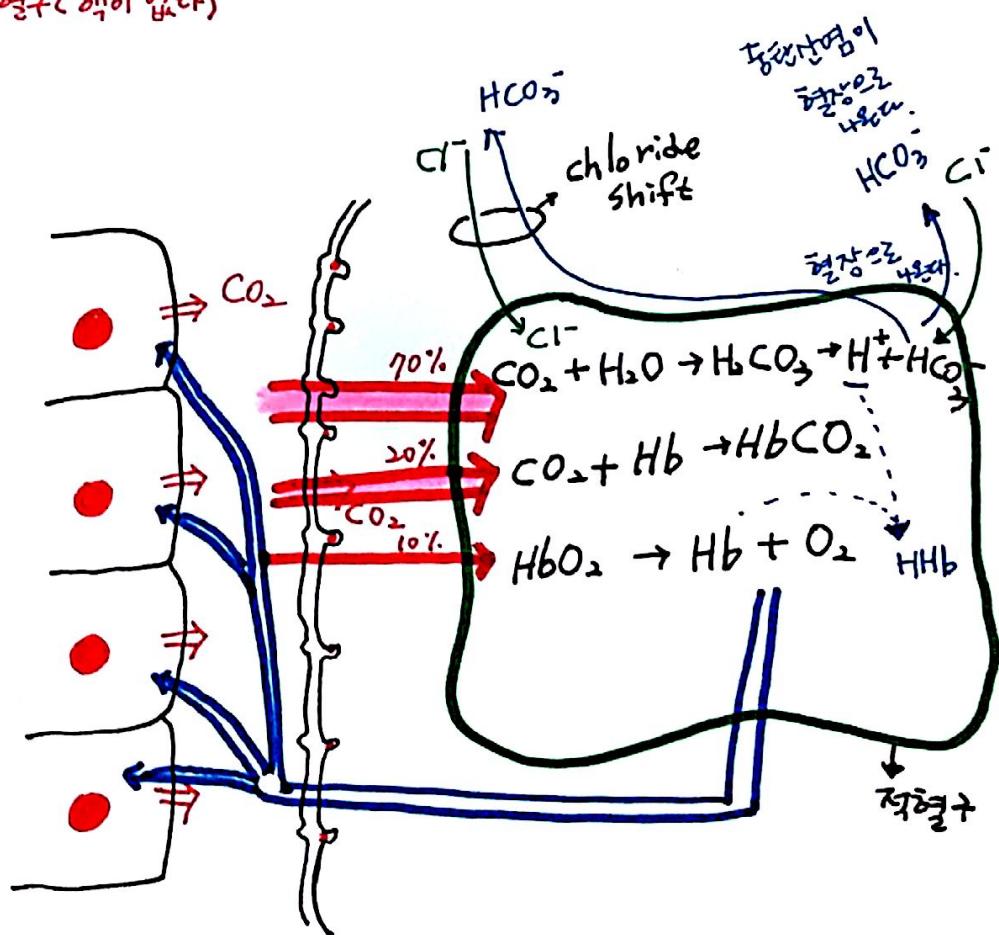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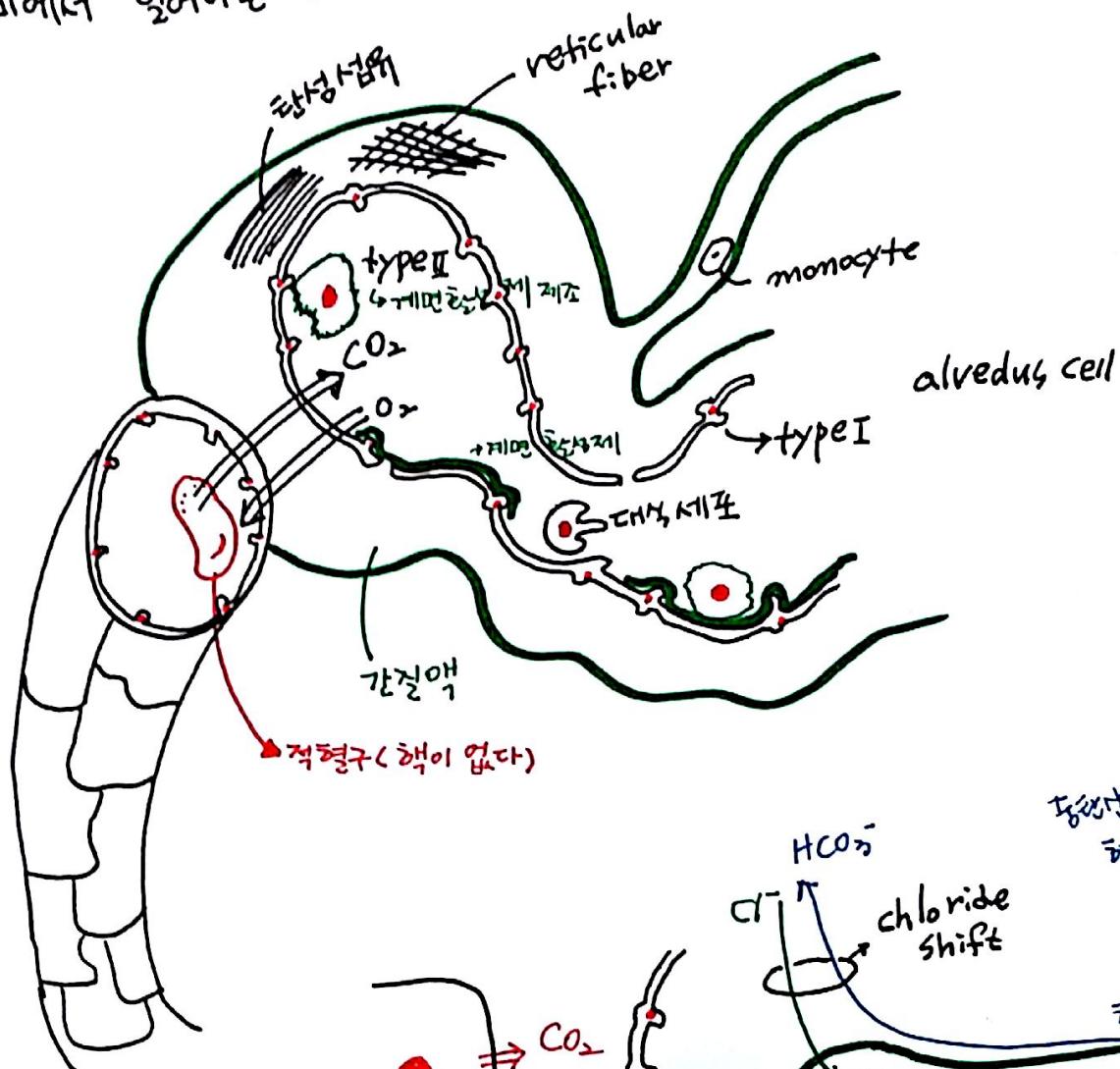
우리가 안정상태에서
호흡량은? 500c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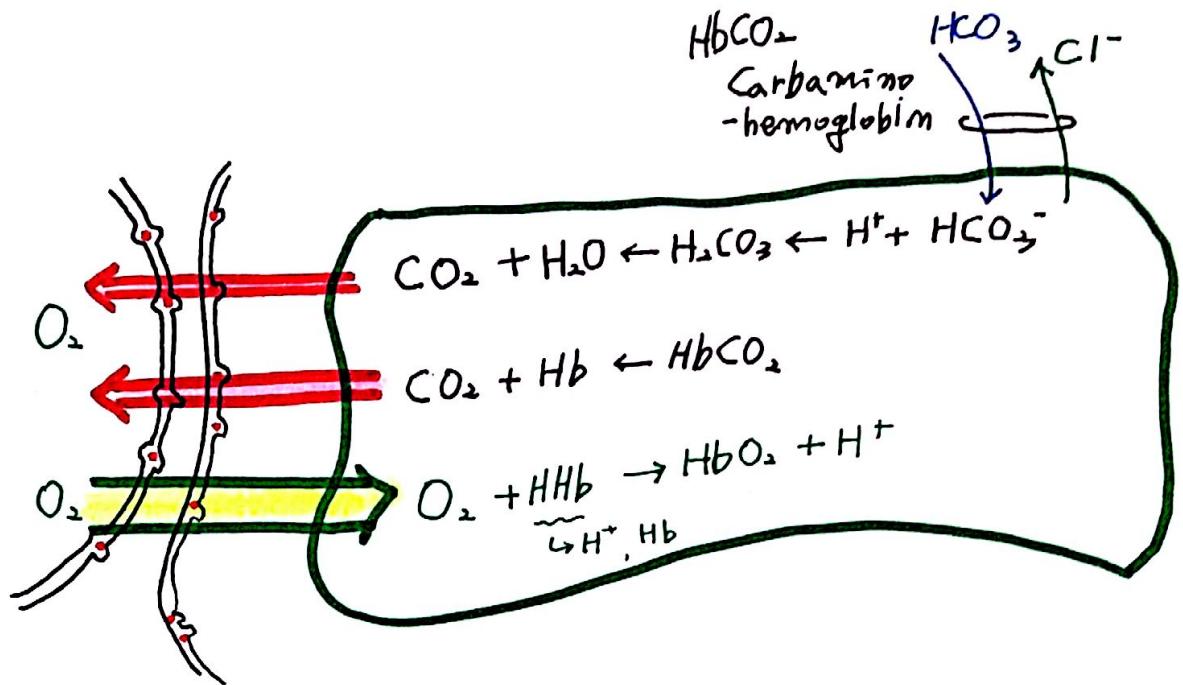
전체 호흡 용적량은?
5,800cc



우리는 바다를 한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.

호흡을 공기 중에 하고 있지만 폐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막을 통해 $O_2 \leftrightarrow CO_2$ 가 일어난다.
아가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.





O_2	210 ml/l	344 ml
60 ml/l		
10 ml/l	민물 0°C	
8 ml/l	844	
6 ml/l	민물 30°C	